

7장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

정죄감이 없으니

-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의와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떨이 단절시키고야 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몇몇 구체적 습성과 내면의 대토에 대한 경고로 이어진다.
- 역시 토라(Torah), 로고스(Logos),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 자신의 세계를 자기 손으로 거머쥐려고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크든 작든, 이제 비극은 시간 문제이다.
- 예수는 7-12절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진정 효과적으로 은혜스럽게 돌보고 돕는 길을 제시하신다. 그것은 요청의 길이요 구하는 길이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천국의 기도로 이어진다. 그것은 언제나 효력이 확실한 길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의도와 계획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난다.

순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함

- 앞부분 (1-11절)에 아가페 사랑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예시되어 있다.
 1. 주변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1-5절).
 2. “놀라운 것들”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6절).
 3.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단순히 구한다 (7-11절).

비판하지 말라

- 천국의 능력 안에서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죄와 비난이라는 인간의 뿌리깊은 습성을 버려야 한다.

누가 남을 “바로 잡을”수 있는가?

- 바울의 말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아주 깊은 것이다. 첫째, 우리는 상대의 죄가 절대적으로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는 바로잡는 일에 나서지 않는다. 둘째, 아무나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이 합당한 자만이 “바로잡는” 위치에 설 수 있다. 셋째, “바로잡는” 일이란 상대를 “고쳐 주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회복의 문제이다. 넷째, 남의 회복을 돕는 자는 자신도상대의 “드러나” 범죄나 혹은 그보다 악한 일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상대를 대해야 한다.

정죄에 개입되는 분노와 멸시

- 정죄와 손을 꿈꿨다는 결단, 즉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 받지도 않겠다는 결단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 분노는 일시만큼 정죄와 밀접하게 얽혀 있지는 않으나 관계가 깊은 것은 사실이다. 분노의 행동을 지켜보면 거의 언제나 정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분노와 멸시를 해결해야 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 정죄와 비난의 결과는 보나마나 똑같은 기준에 의한 역공이다.
- 정죄 당한 자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을 변화 시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반응이 가능한 자라면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죄를 버린 후에 도우라

- 정죄 자체가 우리 눈 속에 있는 틀보이다.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그 분이 말씀하신 천국의 의가 없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
 - 정죄는 우리 눈을 멀게 해 상대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 특히 통상적으로 분노와 멸시와 자기 의가 수반될 때 더 그렇다. 형제를 보지 못하기에 형제를 도울 길도 "밝히 볼 수 없다."
 -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결코 상대를 진정으로 돕는 길을 알 수 없다.
- 비판과 분별**
-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 마태복음 7장에 사용하신 크리노(krino)라는 말은 본래 "분리하다, 구분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는 뜻이다.
 -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정당한 행위까지 버릴 필요는 없으면 그럴 수도 없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공격하거나 문제로 낙인찍지 않으면서 상대의 책임을 지적하며 실패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 지식에 근거한 아가페 사랑이 습성으로 몸에 났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

정죄 없는 가정

- 우리의 우주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정죄가 전혀 설 곳이 없는 새로운 실체 안에 서게 된다.
- 전체적인 시야에서 예수 - 나를 정죄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 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나를 위해 증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직 굳게 붙들면서 정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선한 것이 애가 될 때

진주와 돼지

- 일반적으로 우리의 "보물"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자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바로 이들이 문제의 "돼지" 요 "개"이다. 우리는 이렇게 무가치하거나 악한 이들에게 좋은 것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7:6에 대한 전통적인 표준 해석이다.
- 예수의 마음에 더 크게 어긋나는 것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야말로 돼지 앞의 진주의 사례가 될 것이다.
-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의 문제는 돼지의 무가치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주"를 줄 때 우리에게는 흔히 우월적 태도가 있게 마련이며, "진주" 자체가 좋은 것이기에 우리는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간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셨다. 그분은 분명 그것에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신다. 사실 그분으로서는 그것만이 당신의 영원한 뜻을 위해 당신이 원하시는 인격적 존재들을 얻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뱀과 비둘기

-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어찌할 것인가?
- 뱀의 지혜란 무엇인가? 적시를 포착하는 것이다. 비둘기는 어떠한가? 그런 의미에서 "순결한" 것이다.
-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천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품어야 할 특성들이다. 이런 특성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개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 인내심, 믿음, 소망, 진실성 같은 보다 깊은 특성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공동체의 심장인 요정

요정의 역동성

- 내가 조작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뒤로 물러나 사려 깊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요정이 지니는 역동적인 치유력이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방법이 긍정적 예화이자 마지막 예화이다 (7:7-11)
-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 천국의 방법은 단순히 구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변화를 구하는 것이요 상대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든 들어주는 것이다.

영적 성향의 단일성

-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인간이란 영혼의 성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않는다.

기도의 연속성

- 상대의 유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 같은 절박한 필요, 그 필요에 대한 기본 해답이 마침내 여기서 주어진다. 그 해답은 기도, 즉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주려는 유익을 확실히 성취할 수 있는 보장된 길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땅히 대해야 할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나는가?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해야 한다, 그것이 경쟁에 대한 해답이다.
-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기도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의 공동체의 존재자

- 이렇듯 구함과 요정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를 현재 이 땅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 공동 생활의 가장 깊은 본질로 이끌어 들인다.
-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 관계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의 임재와 행동이 빠진 관계라 존재할 수 없다. “일대일” 관계란 없다. 모든 관계는 예수를 통해 중재된다.

웃음과 구속(救贖)

- 우리의 정죄와 비난과 “진주”로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 때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웃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함께 나누는 진실된 웃음이야말로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삶의 공지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웃음 진정한 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이다.

우주적 정황에서 본 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	
<input type="checkbox"/> 요청이 위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input type="checkbox"/> 우리는 바라고 구하는 대로 무조건 응답되는 것이 안전할 만큼 지식도 충분하지 못하고 욕망도 완전하지 못하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천해야 할 예수의 아름다운 모본이다.	
기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input type="checkbox"/> 예수께서 말씀과 모본으로 가르치신 모든 행동이 그렇듯, 기도의 유효성도 단순히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저절로 입증되도록 되어 있다. 기도의 “영웅”의 몸짓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 기도는 훨씬 배우기 어렵다.	
기도의 기본은 요청이다.	
<input type="checkbox"/> 기도란 구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관계, 즉 체험적 상호 작용이 전제가 된다.	
<input type="checkbox"/>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기도 생활과 다른 측면들	
<input type="checkbox"/> 예컨대 기도란 분명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말한다고 무조건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찬양은 놀라운 행위이며 우리 마음에 찬양이 가득하지 않는 한, 참된 기도한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은 기도가 아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감사와 찬양은 서로 짝과 같다.	
<input type="checkbox"/> 기도란 두 인격의 - 서로 다르면서도 하늘 아버지와 관계된 이 땅의 자녀들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 꼭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총체적 활동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의 핵심은 요청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시지 않는 일에 정말 변화를 가져온다. 당신 앞에 신실하게 서는 자들에게 설득 당하시는 하나님이다.	
<input type="checkbox"/> 요청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요소란 전혀 없다. 기도에 “무조건 공식” 이란 없다. 요청한 내용은 주어진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선한 이유에서이다. 인격간의 관계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인격에 반응하는 우주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실체가 특정 방식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소원과 의지는 제한된 환경 내에서 그 자체만으로 물리적 실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기도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들이 그와 아주 유사한 힘의 존재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기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input type="checkbox"/> 기도가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런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인간의 인격이, 사고와 의지와 소원의 적절한 구사를 통해 통상의 물리적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통치를 가르치는 기도

- 기도에 흔히 많은 노력, 지속적인 노력, 사안에 따라서는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이유도 바로 통치의 고귀한 부르심에서 찾을 수 있다. 기도란 무엇보다도 성품을 형성하는 길이다. 기도는 자유와 능력을 섬김과 사랑에 접목시켜준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결국 얻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갖추게 될 인격이다.
-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받아 원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하나님의 품위 손상?

-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은 그 대화로 인하여 애초에 뜻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애초에 하시려던 일을 거두시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방법이라면 그것은 그분의 품위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

주기도문

-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우주에 살고 있다. 그곳은 인격적 성질의 무한 에너지가 극적 실체가 되는 곳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실존하는 세계 곧 천국의 실체 속으로 들어 가는 것이며, 우리의 몸과 영혼은 비로소 창조 때의 본연의 기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예수의 기도하실 때의 “변형”은 인간 역사에 기록된 물질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계시인 것이다.
- 이 기도는 ‘주여, [세레]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 누가복음에는 “아버지”로 돼 있고 마태복음은 그 특성에 맞게 호칭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연하고 있다. 기도의 “호칭”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호칭은 기도를 큰소리의 혹은 침묵의 넘두리 구별시켜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 이름은 또한 상대와의 관계에서 나의 신분을 나타내 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하나님께 말할 때는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예수는 말씀하신다. 이것은 실체의 틀이며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기도한다.
- 어느 경우이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자신의 세상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요청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다.
 1.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것.
 2.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
 3. 우리의 오늘의 필요가 오늘 채워지는 것.
 4. 우리의 죄에 형벌 대신 용서를 받는 것.
 5. 우리에게 시련(시험)이 허용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input type="checkbox"/>	첫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input type="checkbox"/>	이 요청은 인간 세계의 가장 깊은 필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의 삶이란 단지 인간의 삶 자체만을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 그 근원과 통치자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한, 인간의 삶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될 수 없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input type="checkbox"/>	두번째 요청은 첫번째 요청의 당연한 귀결이다. 모든 것을 선하게 주관하시는 “아바”를 믿는 아이가, 아직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input type="checkbox"/>	세번째 요청은 당장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죽한 줄 알고 말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6:25-34에 나오는 새와 꽃과 대한 예수의 말씀과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며 또한 광야를 방황하던 연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강조점은 오늘의 필요에 해단 오늘의 공급에 있다.
<input type="checkbox"/>	여기서 분명해야 할 것은, 천국의 삶의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데도 말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를 벌하지 마옵시고	
<input type="checkbox"/>	네번째 요청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그분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으신다. (시 103:10-14)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치유의 특성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input type="checkbox"/>	마지막 요청은 아버지께 우리를 시험하지 말도록 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결의이다. 첫 요청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됐다면 마지막 요청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